



“원 지사 결단, 신의 저버려... 심히 유감”

제주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8일간 회기로 어제 개최 좌 의장, 2공항 건설 추진 국토부 의견제출 입장 피력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2공항 사업 추진 입장을 밝힌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 “신의를 저버린 처사이며,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도지사의 개인적인 미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일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좌남수 의장은 1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데 대한 첫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또 최근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좌 의장은 “제2공항 갈등문제의 실태를 풀고자 했던 수많은 논의와 토론, 협의과정 노력들이 다시 격

랑에 휩싸이며 방향성을 상실하지 않을런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좌 의장은 또 “당정협의, 도의회, 반대단체까지 매순간 고비를 넘으며 여론조사까지 오는 데도 쉽지 않았다”며 “하지만 (도지사는) 도민은 물론 대의기관인 도의회에도 어떠한 설명이나 양해 없이 도지사로서 소신과 책임이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 결단이 불가피했다고 얘기하지만, 도의회와의 약속을 외면해 신의를 저버린 처사였다”며 “또다시 도민사회가 갈등과 분열 속으로 치달아서도 안되며, 그 피해가 도민에게 전가돼서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이 17일 제393회 임시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끝나고 결과를 그대로 존중해 정책 결단을 내리면 될 일을, 다시 제주도의 입장을 요구하며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도민사회 갈등을 증폭시킨 기폭제가 된 것”이라며 “향후 제2공항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 조속히 밝

혀 달라”고 요구했다.

좌 의장은 최근 한국주택도시공사(LH) 사태 여파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도의회 의원은 물론 의회 공직자 모두 도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제2공항 예정지와 주변지역 전체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외부 투기세력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17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됐던 이번 임시회 회기가 하루 더 연장된다.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이날 열린 제1차 회의 중 ‘제393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협의의 건’을 수정 의결했다. 앞서 열렸던 392회 임시회 회기 중 도의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일부 상임위원회 일정과 2차 본회의가 취소된 데 따른 것이다.

강대해기자 dhkang@ihalla.com

“환경수용성 갖추고 제주 미래 이야기하라”

강성의 의원, 임시회 5분 발언

강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사진)이 원희룡 제주도정에 대해 “환경수용성을 우선 스스로 갖춘 이후 제주 미래에 대해 논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1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9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환경을 방치한 원희룡 도정’이라는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환경 관련 정책들을 문제삼았다.

강 의원은 “환경도시위원 활동을 하면 할수록 제주의 환경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매순간 느껴왔고, 도정에게 대책을 주문해 왔지만 예산·인력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다”며 “원희룡 지사가 직접 컨트롤 타워가 돼 해결하는 것을 본 적이 없



다”고 꼬집었다. 이어 “18억짜리 제주미래비전운영을 통해 대규모개발을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으로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자들은 다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며 “환경자원총량제, 곳자왈지대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환경보전기여금, 국립공원 및 국가정원 확대지정, 송악산 선안까지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실천도 성과도 없는 말뿐인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규모 건설공사로 경제활성화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환경수용성을 스스로 갖춘 후에야 제주미래를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대해기자

국토부, 제2공항 공무원 투기 조사 안하나

장관 언급 불구 움직임 없어

제주 제2공항 부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직원 대상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움직임이 없어 자체 조사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제주 제2공항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변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제2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하지만 17일 현재까지 국토부는 별

도의 조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무원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사를 했고, 조사결과, 원희룡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제주 제2공항 관련 전직원 대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5일 제2공항 부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계획을 밝혔다. 제주도는 3월말까지 공무원 대상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제주도의 조사는 제주도 공무원에 한정돼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경찰청장 “제2공항 투기 의혹 수사 강구”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제주 제2공항 부지 투기 의혹에 대해 필요시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제주 제2공항 예정지도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 의혹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며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제주도 자체조사는 현재 퇴직자·

차명거래·법인 조사 계획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수사본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정보가 들어오는데로 원칙대로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별수본은 전국수사 지휘에 중점을 두고 있고, (제주도 외 필지 매매에 대해) 필요하다면, 합동 수사팀 편성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사전정보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한 뒤 제주4·3유족회원들과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국회의원 된 후 4·3 풀어야겠다 마음먹어”

추미애 전 장관 유족회·평화재단으로부터 감사패 어제 4·3평화공원 참배 후 간담회... 유적지 탐방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제주4·3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 힘쓴 공로를 인정

받아 제주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평화재단은 17일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기념관에서 수형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규정을 신설하는 데 힘써 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4·3 군법회의의 수형인은 일괄 재심을,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기여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감사패 수여식에 앞서 4·3평화공원에서 희생자들을 참배했다.

그는 “제주4·3을 거의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른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제주도민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비극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게 부끄러워 국회의원이 된 후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국회에서 많은 갈등에 부딪혔지만 제주4·3 문제만큼은 정성껏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해왔다”고 소감을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감사패 증정식 및 간담회에 이어 18일에는 제주시 조천읍 북촌 너분송이기념관, 화북1동 곤울동 일야버린 마을, 옛 주정공장 터 등 4·3유적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한편 추 전 장관은 1999년 국회의원 초선 시절 4·3특별법 제정을 대표 발의하고 정기 국회에서 제주4·3해결 문제를 집중 질의하는 등 진정성을 보이며 4·3특별법 제정 당시 제1호 명예제주도민으로 추대됐다.

또 법무부 장관 시절엔 제주4·3평화재단에 4·3유족 장학기금으로 사재 5000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강대해기자

국비무료 내선공사실무및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 취득 과정

접수기간: 2021년 1월 05일 ~ 2021년 03월 09일

교육기간: 2021년 3월 29일 ~ 2021년 09월 24일 (6개월, 125일, 870시간)

교육시간: 09:00 ~ 17:00 (7교시, 점심시간 12:00 ~ 13:00)

교육내용: 전열, 조명, 동력설비, 배선, 배관, 태양광설비, 전기기능사 필기·실기, 신재생에너지기능사 필기·실기

지원 자격: 국민 내일배움카드소지자 / 수강 시 교통비 지급 됩니다.

합격 (총 23명 응시)

“2020 4회 전기기능사” 87% 최종합격
양*호, 나*철, 고*빈, 변*구, 이*진, 김*호, 송*원, 김*철, 박*욱, 김*수, 김*진, 김*철, 문*기, 문*국, 정*우, 김*철, 문*인, 임*봉, 현*림, 김*희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학교 수업대신 제주직업전문학원으로 출석해도 졸업 인정!!

2021학년도 일반고 3학년대상 고교위탁 신입생 모집

[일반고특화] 바리스타&베이커리실무 및 자격취득 과정

일반고 특화과정은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일반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약 10개월 동안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연계 해주는 과정입니다.

□ 위탁반 신청 대상 : 2021학년도 일반고 고3 예정 학생

□ 대상학교 : 제주도내 일반고 및 특성화고 일반학과

□ 모집과정 및 인원 : 바리스타&베이커리 실무 및 자격 취득 과정 / 20명

□ 위탁반 신청 방법 : 각 학교 진로진학부 또는 담임 교사와 상담하여 접수

□ 접수기간 : 2020년 12월 20일 ~ 2021년 3월 21일 (인원초과시 조기 마감)

□ 교육기간 : 2021년 3월 22일 ~ 2021년 12월 예정 (1,224시간)

□ 교육시간 : 주중 월~금 9:00 ~ 17:00 (예정, 점심시간 1시간 포함) ※매월 셋째주 월요일은 원적교 등교

□ 교육특전

1. 교육비, 교재비 전액 국비지원(100%)
2. 훈련 장려금 및 교통비 지급
3. 체계적인 자격시험 대비 교육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4. 산업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으로 완벽한 취업 준비
5. 취업상담 및 지원

□ 교육장점

1. 다년간 운영 경험으로 교육행정 편리성 보장
2. 철저한 학생관리를 통한 복교율 최소화
3. 전문상담사에 의한 학생 개인별 맞춤 상담으로 체계적인 상담 가능

□ 지원문의 : (064) 725-5545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
064)725-5545 <http://www.jejuvs.co.kr>

해외·육지 전문여행사

여행의 멋과 맛, 재미 모두 준비했습니다.

특가진행
6월~10월 까지

대형우등버스 1일 40만원 부터~
중형우등버스 1일 20만원 부터~

여행품질과 가격비교 자신있습니다.

육지 전세버스 보유업체

미도항공·미도투어
위치 : 제주시 용담1동(오라오거리) ☎713-1951
상담 유옥종 010-5015-1951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벽화건물, 담장 / 인테리어 벽화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자방개방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دم기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누출청소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